

원효의 정토사상에 담긴 화쟁의 정신

김영일*

• 목 차 •

- I. 머리말
- II. 원효의 정토사상
 - 1. 기원과 전래
 - 2. 정토관련 저서
- III. 정토
 - 1. 정토의 형상
 - 2. 정토의 공유
- IV. 수행
 - 1. 생성의 원인
 - 2. 왕생의 원인
- V. 사람
 - 1. 아미타불
 - 2. 정정취중생
- VI. 맺음말

* 동국대학교 강사.

한글요약

본고는 원효의 화쟁론이 그의 정토사상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다. 원효는 정토사상이 어리석고 소박한 신라의 민중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간파하여 『무량수경종요』를 비롯한 여러 저서를 지어 정토사상의 참뜻을 널리 알렸다. 우리는 이러한 저서에서 제설을 진리에 입각하여 조화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의 특징적인 화쟁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첫째, ‘정토’ 분야에는 정토의 형상과 공유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정토의 형상’에 관한 논의에서는 2개의 관점[門]을 제시한 뒤에 이것을 바탕으로 양설을 회통하고 있는데, 그는 경론의 저자가 가진 의도·견해·입장까지를 고려한 해석을 하여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정토의 공유’에 관한 논의에서는 양설이 모두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는 언어가 가리키려고 하는 참뜻을 새긴다면 양설이 맞고 틀리는 것은 다만 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둘째, ‘수행’ 분야에는 정토의 생성원인과 왕생원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생성의 원인’에 관한 논의에서는 ‘모두 성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옳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그는 경전의 내용들은 모두 옳다고 굳게 믿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생의 원인’에 관한 논의에서는 양설이 실제로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가 폭넓은 경전에 관한 공부를 바탕으로 논쟁의 당사자를 진심으로 승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셋째, ‘사람’ 분야에는 아미타불과 정정취중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아미타불’에 관한 논의에서는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경론의 틀 속에서 경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독자들의 무지와 오해를 일깨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정정취중생’에 관한 논의에서는 비록 일반적인 회통논의에 해당하는 구조를 가지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쌓은 경전에 관한 폭넓은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주제어

원효, 화쟁, 정토, 정토경전, 아미타불, 중생, 생성원인, 왕생원인, 형상, 공유.

I. 머리말

한국불교를 대표할만한 사상가 중의 한 분으로 원효대사를 거론하는 사람들이 많다. 방대한 저서에 담겨 있는 활달한 문장을 보거나 음미할수록 심오한 사상을 들으면서, 이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구나 그분의 핵심사상인 화쟁론은 오늘날과 같이 여러 문화와 문명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빛을 더욱 발휘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和靜’이란 언뜻 보면 서로 다른 요소들이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제대로 보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 같다.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른 요소들이 혼란되고 모순되어 보이지만 진리를 깨달은 성인들에게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정돈되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까닭에 그 점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화쟁론’이 아닌가 한다.

원효의 이러한 화쟁정신은 그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십문화쟁론』에 잘 드러나 있다. 비록 불완전한 형태로 남겨있기는 하지만, 「공유이집화쟁문」, 「불성유무화쟁문」에 해당하는 몇 줄의 글귀만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의 이러한 의도를 알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사실, 그의 화쟁론은 『십문화쟁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타 많은 그의 저서에서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원효가 일반 서민을 위해서 베풀어 놓은 정토사상에서 그의 화쟁론의 일단을 찾아보고자 한다. 정토사상이란 넓게 보면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하는 미타정토사상과 미륵불을 중심으로 하는 미륵정토사상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미륵정토사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고 본고에서는 미타정토사상에 대한 부분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원효의 정토사상은 오늘날 『무량수경중요』, 『아미타경소』, 『유심안락도』, 『미타증성계』에 잘 드러나 있다. 이중에서 『유심안락도』는 원효의 저술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¹⁾ 그리고 『미타증성계』는 법장을 찬탄하는 짧은 계송에 불과하므로 역시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결국 본고는 『무량수경중요』를 중심으로 하고 『아미타경소』를 참고로 하여 진행하기로 한다.²⁾

원효의 저서를 보면 어떠한 논점에 대해서 서로 맞서는 의견이 제시된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공방이 있으면 이것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는 원효가 제설을 화해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원효의 정토관계의 저서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업적들을 참고할 것이다.³⁾

-
- 1) 고익진, 「유심안락도의 성립과 그 배경」, 『불교학보』 13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6) pp.153-170.
신현숙, 「원효 무량수경중요와 유심안락도의 정토사상 비교」, 『불교학보』 2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pp.129-184.
 - 2) 정토사상은 단순한 언설만이 아니라 깊은 실천을 바탕으로 논의되어야 살아있는 사상이 될 것이다. 원효의 화쟁정신이 그의 정토사상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있어서도 마땅히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필자의 능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여 본고에서는 그분의 정토관련 저서에서 문자로 표현된 부분에서 화쟁의 정신이 드러난 경우만을 간추려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을 따름이다.
 - 3) 본고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가진 선행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준 선행연구들의 목록은 참고문헌에 모두 소개하였다. 이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몇 가지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3년 안계현은 ‘십념’에 관한 논의에서 원효가 은밀문과 현료문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의 독특한 화쟁적 해설이라고 보았다. 둘째, 1984년 강동균은 ‘색·무색문’에 관한 논의에서 무색설의 근원은 길장의 견해이고 유색설의 근원은 규기의 견해를 지적하였다. 셋째, 1997년 김정집은 ‘은밀십념’에 관한 논의에서 원효가 미타경전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미륵경전을 인용하였음을 지적하였다.

II. 원효의 정토사상

원효의 정토사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화쟁과 관련된 논의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원효의 정토사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기원과 전래

아미타정토사상의 기본 모습은 어떠한가? 경전에 따르면, “사리불이여, 저 국토를 어찌하여 극락이라고 부르는가? 그 나라의 중생들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고 다만 여러 가지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고 부른다.”고 하여⁴⁾ ‘극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또한 “법장보살이 이제 성불하여 현재 십 만억 국토를 지나 安樂이라고 하는 서쪽에 계시는데 이것을 정토라고 한다.”고 하여⁵⁾ ‘정토’를 언급하고 있다.

극락정토의 ‘모습’에 대해서는, “그 정토는 자연의 칠보로 이루어져 있고, 금, 은, 유리, … 이루어져 있다. 그 정토에는 수미산 및 일체의 산이 없고 큰 바다, 작은 바다, 시내, 골짜기, 우물 등이 없지만 부처님의神通력으로 보고자 하면 즉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그 정토에는) …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4계절도 없고, 춥지도 덥지도 않는 항상 온화한 국토이다.”라고⁶⁾ 묘사하고 있다.

4) 『불설아미타불』(大正藏12, 346하), “舍利弗 彼土何故名爲極樂 其國衆生無有衆苦 但受諸樂故名極樂.”

5) 『불설무량수경』(大正藏12, 270상), “法藏菩薩今已成佛 現在西方 去此十萬億刹 其佛世界名曰安樂.”

6) 『불설무량수경』(大正藏12, 270상), “其佛國土自然七寶 金銀琉璃珊瑚琥珀車磔瑪瑙合成爲地 恢廓曠蕩不可限極 悉相雜廁轉相入間 光赫焜耀微妙奇麗 清淨莊嚴超踰十方一切世界 衆寶中精 其寶猶如第六天寶 又其國土無須彌山

또한, 극락정도에 ‘태어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부처가 될지라도 시방의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원해 저의 나라에 태어나려고 10년을 하여도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⁷⁾ 극락정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입으로 부처님을 부르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염불’을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아미타정토사상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발생된 것일까? 인도의 서북지역은 인도의 고대문명의 발상지일 뿐만 아니라 이란 문화와의 접촉지역이기 때문에 아미타사상은 인도의 서북지방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다. 불교사상이 발전된 인도사상에 이란사상과 외래사상이 첨가되어 아미타불의 신앙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⁸⁾

또한 아미타사상은 서력기원 전후에 성립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대승불교의 발생연대를 추정하는 것과 비슷하게 중국에서 기록된 정토관련경전의 번역연대에 의존한다. 즉, 지루가참이 번역한 『반주삼매경』이 2세기 중엽에 번역되었는데 당시에 인도에서 중국까지 문화전파가 100년에서 200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서력기원 전후에 인도에서 아미타사상이 성립하였을 것이라고 본다.⁹⁾

또한 아미타사상은 당시 인도사회에서 석가모니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르침을 출가교단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석가모니부처님의 참모습으로서 아미타부처님을 이해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당시의 보

及金剛圍一切諸山 亦無大海小海溪渠井谷 佛神力故欲見則見 亦無地獄餓鬼 畜生諸難之趣 亦無四時春秋冬夏 不寒不熱常和調適.”

7) 위의 책, p.268상, “設我得佛 十方衆生至心信樂 欲生我國乃至十念 若不生者不取正覺 唯除五逆誹謗正法.”

8) 坪井俊映, 한보광역, 『정토학개설』 (서울: 흥법원, 1984) pp.49-50.

9) 위의 책, p.50.

수적인 출가교단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재가교단과 일부 진보적인 출가교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¹⁰⁾

이와 같이 인도에서 성립한 아미타정토사상은 이제 중국으로 전래된다. 전래 초기에는 여러 사상이 섞인 주술적인 성격이 짙었으나, 점차 불교의 독자적인 성격을 갖추어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아미타불을 염불하는 염불삼매를 위주로 점점 방향을 정하게 되고 마침내 ‘정토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중국의 정토종은 대개 혜원류, 담란·도작·선도류, 자민류의 3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 제1류에 해당하는 慧遠(334-416)은 여산의 동림사에서 염불백련결사를 맺고 서방왕생을 평생 구함으로써 강한 실천 불교를 내세운 중국 정토종의 시조이다. 그는 중국에서 정토종을 뿌리내린 장본이지만 일반적인 정토종의 경전인 정토삼부경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불을 주로 하는 『반주삼매경』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제2류의 曇鸞(476-542)은 『왕생론주』를 써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정토종을 건설한 사람이다. 그에 의해서 관불보다는 칭명으로 수행방법이 변화하였으며, 정토삼부경에 토대를 두고 정토사상을 전개하였다. 담란을 이은 道綽(562-645)은 『安樂集』을 저술하여 말법시대의 어리석은 중생들이 극락에 가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였는데, 그 방법으로 무조건적인 口稱念佛을 제창하고 제자들에게 쿵을 가지고 염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제자 善導(613-685)는 정토종의 대성자로 염불신앙을 제창하였는데 특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칭명염불을 제창하였다.

제3류에 해당하는 慈愍(630-748)은 오랜 인도유학을 마치고 와서 찬가를 지어서 정토교를 중국에서 널리 선양하였다. 그는 당시에 유행하였던 선종의 참선수행에도 관심을 두었으며 자신의 정토종염불

10) 위의 책, p.50.

수행과 선, 율의 습합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요소가 복합된 중국의 정토교가 마침내 한반도에 들어와 신라의 원효에게 전해진 것이다.

2. 정토관련 저서

아미타정토에 관련된 경전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반주삼매경』이다. 그 내용은 사부대중이 계행을 지키고 조용한 곳에서 일심으로 1주야 내지 7주야동안 서방의 아미타불을 염불한다는 반주삼매법에 의해서 定中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하게 된다는 것인데 4종의 한역본이 있다. 원효는 이에 대한 주석서로 『반주삼매경소』, 『반주삼매경약기』라는 저서를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다.

이후로 ‘정토삼부경’이라고 불리는 경전들이 등장하였다. 『아미타경』은 아미타정토의 장엄함과 임종시 7일 동안 염불하여 부처님을 친견한다고 설하는데, 2종의 한역본이 현존하고 원효의 주석서로 『아미타경소』가 남아있다. 『무량수경』은 범장보살이 수행 도중에 세웠던 48본원을 성취하여 아미타불로서 서방극락정토에 태어난 이유를 상세히 설하고 있는데, 5종의 한역본이 현존하고 원효의 개론서로 『무량수경중요』가 남아있다. 또한 『관무량수경』은 16관법과 9품왕생설을 중심으로 설하고 있는데, 1종의 한역본이 현존하지만 원효의 관련저서는 없다.

본고는 주로 『무량수경중요』를 중심으로 원효의 아미타정토사상을 살펴보고자 하므로 이 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효는 『무량수경중요』를 총2권으로 저술하였는데, 오늘날 남아있는 1권은 상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총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권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4장 就文解釋」을 제외한 3개장의 중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대의」에서는 『무량수경』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중생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저 언덕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은 모두 다 꿈이다. 그런데 만일 그 꿈에서 깨면 예토와 정토가 본래 일심일 따름이고, 생사와 열반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은 쉽지 않기에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께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중생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한다.

「제2장 중지」의 「제1절 果德」에서는 중생들이 수행을 한 결과 태어나게 되는 ‘정토’에 대해서 서술한다. 원효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분류 방법으로 정토를 因·果, 一向·不一向, 純·雜, 正定·非正定과 같이 새롭게 4가지의 相對門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그런 다음 ‘정토에는 형상이 있는가?’ 혹은 ‘정토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인가?’와 같은 논점들에 대해서 하나씩 논의해 나아간다.

「제2장 중지」의 「제2절 因行」에서는 정토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중생들의 ‘수행’에 대해서 서술한다. 먼저 정토가 만들어지게 되는 근본원인인 成辦因에 대해서는 ‘성변인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중생들이 정토에서 태어나게 되는 원인인 往生因에 대해서는 正因과 助因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명쾌하게 설명해 나아간다.

「제3장 約人分別」에서는 정토에서 태어나고자 수행을 하는 ‘중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먼저 중생을 ‘유를 구하는 사람’, ‘유를 여인 사람’, ‘유와 무를 다 여인 사람’을 기준으로 3聚衆生을 규정하고 설명한 뒤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논술한다. 그리고 중생을 성소작지,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를 기준으로 4疑惑衆生으로 나눈 뒤 각각 해당된 중생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효는 『무량수경중요』에서 ‘정토’, ‘수행’, ‘중생’의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효의 서술체계에 따라서 본고의 서술도 대체로 그에 따라서 기술하

고자 한다. 다만 본고는 원효의 ‘정토사상’을 범위로 하고 있으므로 『무량수경중요』의 ‘중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토사상의 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중생’이라는 타이틀을 ‘사람’으로 바꾸고 여기에 ‘아미타불’과 ‘중생’을 포함시켜서 서술하고자 한다.

Ⅲ. 정토

여기에서는 원효가 ‘정토’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 중에서 화쟁논의가 전개된 부분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는 주로 『무량수경중요』 제2장 중지의 「제1절 과덕」에서 논의하고 있다.

1. 정토의 형상

원효는 다른 정토사상가와 마찬가지로 아미타불의 정토도 일승과 삼승에 따라서 그 위격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일승의 뜻에 의하면 정토는 華藏世界에 속하게 되어 시방의 불토가 원융하여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지만 삼승의 뜻에 따르면 정토는 법성토, 자수용토, 타수용토, 변화토로 구분된다고 한다.

한편, 원효는 위 설에 바탕을 두면서도 정토에 대한 자신만의 독창적인 분류체계를 보여주었다. 제1절 과덕의 「제1항 淨門과 不淨門」에서 그는 정토를 因·果相對門, 一向·不一向相對門, 純·雜相對門, 正定·非正定相對門으로 구분하였다.¹¹⁾ 여기에서 인·과문은 법성토

11) ① 因·果相對門에 의하면 부처님이 머무는 곳만이 정토이고 금강 이하의 보살이 머무는 곳은 예토이다(『인왕반야경』의 설). ② 一向·不一向相對門에 의하면 8지 이상의 보살이 머무는 곳이 정토이고, 7지 이하의 보살이 머무는 곳은 예토이다(『십대승론』의 설). ③ 純·雜相對門에 의

와 자수용토에 해당되고, 일향·불일향문, 순·잡문은 타수용토에 해당되며, 정정·비정정문은 변화토에 각각 해당된다.

원효는 이러한 4가지 상대문의 뜻을 밝힌 뒤에 「제1절 과덕」의 제2항 色門과 無色門에서 이러한 정토가 과연 형상이 있는 세계인지 없는 세계인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즉 나머지 3개문에는 형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인과상대문의 자수용토에는 과연 형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일치하지 않다고 소개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제1설(無色說)에서는 자수용토는 형상을 아주 멀리 여원 법성으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과 형상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한다. 『본업경』에서 말하기를, “청정한 국토는 끝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라고 하였고, 『기신론』에서도 “모든 부처님은 오직 진리의 몸이요 …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몸이요”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문증에 의하면 자수용토에는 형상이 없다는 것이다.¹²⁾

제2설(有色說)에서는 자수용토에는 장애가 없는 미묘한 형상이 있고 그 국토에는 뛰어난 六塵을 갖춘 경계가 있다고 한다. 『薩遮尼乾子經』에서, “瞿曇의 법성의 몸은 그 미묘한 색이 항상 맑고 고요하며 …”라고 하였고, 『화엄경』에서도 “여래께서 보리를 이루었을 때에 일체 중생과 같은 몸을 얻었고 …”라고 하였으며 『섭대승론』에서도, “정토 가운데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서 육근이 수용하는 법을 다 갖추었으며 …”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¹³⁾

이러한 양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하고 있다.

하면 지상보살이 머무는 곳이 정토이고 지상 이하의 보살, 이승, 범부가 머무는 곳은 예토이다(『유가론』의 설). ④ 正定·非正定相對에 의하면 정정취인 중생이 머무는 곳이 정토이고 사정취 및 부정취인 중생이 머무는 곳은 예토이다(『무량수경』의 설).

12) 원효, 『무량수경종요』(韓佛全1, 555상-중)

13) 위의 책, p.555중.

두 분의 말씀에 모두 도리가 있으니 한결같이 경론에 근거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고 여래의 법문은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報佛身の 국토에 대해서 대략 2가지 관점이 있는데 만약 ‘형상의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관점[正相歸源之門]’에서 말하면 앞 분의 말씀과 같고 만약 ‘성품을 따라 덕을 완성하는 관점[從性成德之門]’에서 말하면 뒷 분의 말씀과 같아서 모두 경론을 인용하여 각각 그 관점을 따라 말씀한 것이므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⁴⁾

이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양설은 모두 경론에 근거하고 있고 여래의 법문에는 장애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신불이 계신 국토에 대해서는 2가지의 관점으로 말할 수 있는데 만약 ‘형상의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관점’에서 말하면 제1설(無色說)과 같아지게 되고, 만약 ‘성품을 따라 덕을 완성하는 관점’에서 말하면 제2설(有色說)과 같아지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양설은 같은 뜻을 단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 옳다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그가 ‘2개의 관점[門]’을 제시하여 양설을 회통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원효는 화쟁론을 전개할 때 종종 ‘2개의 관점’을 제시하여 이것을 각각 양설에 적용시키곤 한다. 그리하여 ‘양설이 각각 다른 관점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같은 뜻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양설은 모두 옳다’는 말을 한다.¹⁵⁾

14) 위의 책, p.555중-하, “二師所說 皆有道理 等有經論 不可違故 如來法門 無障礙故 所以然者 報佛身土 略有二門 若就正相歸源之門 如初師說 若依從性成德之門 如後師說 所引經論 隨門而說 故不相違.”

15) 연구에 따르면 원효는 총67개의 화쟁사례 중에서 26개의 사례에서 이러한 2개의 관점[門]을 설정하여 회통하였다고 한다.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p.137.>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원효는 『법화중요』 「妙用」에서 ‘삼승이 방편인가, 이승이 방편인가?’에 관하여 논하는데, 삼승설과 이승설의 주장에 대해서 회통한다. <원효, 『법화중요』(韓佛全1, 491하)> 여기에서 원효는 삼승설과

이러한 그의 전형적인 회통방법 중의 하나를 본 논의에서도 접하게 된다.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형상의 근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관점’과 ‘성품을 따라 덕을 완성하는 관점’과 같이 보통사람들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회통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원효가 여러 경론에 대하여 넓고 깊은 지식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저서 목록만 보아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을 구체적인 논쟁에 적용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 원효는 경론을 설하는 저자가 가진 입장까지를 고려하여 경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그 경론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 정토의 공유

예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정토에도 正報와 依報가 있다. ‘정보’란 과거세에 지은 업의 과보로 인하여 금세에 태어난 유정의 몸을 말하고, ‘의보’란 그 육신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객관적인 자연환경 내지 국토를 말한다. 원효는 『아미타경소』에서 정토에서 정보가 가지고 있는 청정함에 대해서 주불, 권속, 대중, 상수 등 4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¹⁶⁾ 그리고 정토에서 의보가 가지고 있는 공덕을 총공덕 1가

이승설이 모두 옳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별교’의 입장에서 보면 삼승이 모두 방편이 되므로 삼승설이 옳고, ‘통교’의 입장에서 보면 불승은 진실이고 이승만이 방편이 되므로 이승설이 옳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원효가 ‘별교’와 ‘통교’이라는 ‘2개의 관점[門]’을 설정하여 양설을 회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 16) 첫째, 主佛의 莊嚴功德에 있어서는 광명이 무량하고 수명이 무량하다고 한다. 둘째, 眷屬의 장엄공덕에 있어서는 성문제자들이 모두 다 아라한과를 얻었다고 하는 점이다. 셋째, 大衆의 장엄공덕에 있어서는 중생으로 난 자는 다 물리남이 없는 대중들이라는 점이다. 넷째, 上首의 장엄공덕에 있어서는 그 나라에 한 생을 있다가 부처를 이룰 보살이 대단히

지와 별공덕 14가지로 구분하여 찬탄하고 있다.¹⁷⁾

한편 원효는 『무량수경중요』 제1절 과덕』의 제3항 共門과 不共門』에서 정토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토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지 않는다고 모두가 인정한다. 하지만 “정토의 의보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는 확설이 일치되지 않는다고 소개하면서 이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제1설(不共說)에서는 정토의 의보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왜냐하면 첫째, 저 산과 바다와 같은 것은 아주 작은 원소가 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의 실체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중생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 각각 따로 활동하는데 설령 한곳에 함께 있더라도 서로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유식’의 이치가 법계에 가득하기 때문에 비록 보고 있는 처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¹⁸⁾

제2설(共有說)에서는 정토의 의보는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첫째, 의보는 비록 識을 여의지는 않지만 식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자수용토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부처

많다는 점이다. <원효, 『아미타경소』(韓佛全1, 564하-565상)>

17) 별공덕 14가지를 먼저 말하면 첫째, 온갖 괴로움이 없고 즐거움만을 받는 공덕을 성취한다. 둘째, 갖가지 꽃과 보배로 국토를 장엄한 공덕을 성취한다. 셋째, 장엄한 물의 공덕을 성취한다. 넷째, 갖가지 일마다 결합이 없는 공덕을 성취한다. 다섯째, 오묘한 빛깔로 장엄의 극치를 이룬 공덕을 성취한다. 여섯째, 음악의 공덕을 성취한다. 일곱째, 보배로운 땅의 공덕을 성취한다. 여덟째, 꽃비의 공덕을 성취한다. 아홉째, 마음대로 어디든지 노닐 수 있는 자재의 공덕을 성취한다. 열째, 受用하는 공덕을 성취한다. 열한째, 못 새들을 변화시켜 묘한 범문을 설법하는 공덕을 성취한다. 열두째, 惡道 등의 이름이나 실상이 없는 大義의 공덕을 성취한다. 열셋째, 보배그물로 허공을 장엄한 공덕을 성취한다. 열넷째, 훌륭한 성품을 장엄한 공덕을 성취한다. 그리고 총공덕이란 위에서 말한 별공덕 14가지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모습을 말한다. <원효, 『아미타경소』(韓佛全1, 564상-하)>

18) 원효,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555하-556상)

님과 더불어 한 국토를 함께 공유하시는데 이것은 마치 법신을 부처님이 함께 의지한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셋째, 타수용토에서는 부처님이 모든 보살과 더불어 공유하는데 이것은 마치 왕이 신하와 더불어 한 나라를 공유한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넷째, 자수용토와 타수용토는 별체가 아니니 마치 관행하는 사람이 돌을 옥으로 보는데 지혜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곧 돌로만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섯째, 의보는 識을 따라 달라지지 않으니 만일 식을 따라 달라진다면 나의 결과는 비록 없어지더라도 남의 결과는 오히려 남아 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⁹⁾

이와 같이 장황한 양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회통한다.

문는다. 이와 같은 양설 중에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가? 답한다. 만일 그 말만을 취한다면 논리가 성립하지 않지만, 뜻으로 이해하면 모두 道理가 있다.²⁰⁾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만일 그 말만을 취한다면 모두 논리가 성립하지 않아서 양설이 모두 그르게 되지만 뜻으로 이해하면 모두 도리가 있어서 양설이 모두 옳게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본 논의의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다’고 말한 점이다. 사실 원효의 저서에서 제설을 회통하는데 있어서 ‘제설이 모두 옳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제설이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 있는데 이경우가

19) 위의 책, p.556상-하

20) 위의 책, p.556하, “問 如是二說 何得何失 答曰 如若言取 但不成立 以義會之 皆有道理.”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²¹⁾

내용적인 면에서는 ‘말을 취하지 말고, 뜻으로 이해하라’는 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손가락에 의지하지만 손가락을 떠난 달을 보여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떠난 진실을 중생에게 알려 주려고 하신다.²²⁾ 이런 까닭에 여기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매달리지 말고 그 언어가 가리키려고 하는 참뜻을 새긴다면 공유설과 불공설은 말하기에 따라서 맞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화쟁은 말보다는 그것이 가리키는 뜻에 중점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IV. 수행

여기에서는 원효가 ‘수행’에 관하여 기술한 내용 중에서 화쟁논의가 전개된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는 주로 『무량수경중요』 「제2장 중지」 제2절 因行」에서 이점을 논의하고 있다.

- 21) 이 경우 이외에 다른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본다. 『열반중요』 「體相門」에서는 ‘열반의 본체는 진실한가, 허망한가?’에 관하여 논하는데, 제1설(진실설)과 제2설(허망설)에 대해서 회통하기를, “만일 말을 그대로 취한다면 양설에 다 손실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으로 다투어서 부처님의 뜻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만일 고정된 집착을 아니 하면 양설에 함께 이득이 있다. 법문은 걸림이 없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원효, 『열반중요』(韓佛全1, 529상-중), “若如言取 二說皆失 互相異諍 失佛意故 若非定執 二說俱得 法門無礙 不相妨故.”>
- 22) 원효는 『십문화쟁론』에서 ‘언어’와 ‘진의’와의 관계를 ‘손가락’과 ‘달’로 비유하여, 위와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원효, 『십문화쟁론』(韓佛全1, 838상-중)>

1. 생성의 원인

정토를 창조하는 근본원인을 ‘成辨因’이라고 한다. 원효는 『무량수경종요』에서, “성변인은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얻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양설의 주장이 있다.

제1설(본유설)에서는 본래 무루의 범이종자가 있는데 이것을 三無數劫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수행하여 널리 증장시킴으로써 정토가 생기게 된다고 한다. 『유가론』에 보면, “那落迦에 나서도 세 가지 무루의 근본종자를 성취하느니라”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무루의 정토를 성취하는 종자가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²³⁾

제2설(후득설)에서는 二智로 훈습되어 새로 생긴 종자가 정토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한다. 『섭론』에 보면, “출출세간의 선법이 공릉에 따라서 정토를 일으키게 되니, 무엇이 출출세간의 선법이 되는가? 무분별지와 무분별후득지로 생겨난 선근이 출출세간의 선법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라면 새로 생겨진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이미 생겨진 것이므로 새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²⁴⁾

이러한 양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묻는다. 이와 같은 2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한가? 답한다. 모두 성전에 의거하였으니, 어찌 진실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그 자세한 내용은 『능가경요간』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²⁵⁾

23) 원효, 『무량수경종요』(韓佛全1, 557중-하)

24) 위의 책, p.557하

25) 위의 책, p.557하, “問 如是二說 何者爲實 答 皆依聖典 有何不實 於中委悉 如楞伽經料簡中說.”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양설의 주장이 모두 다 성전에 근거를 두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판단에 이르게 된 자세한 내용은 『능가경요간』에 적혀있는 기록을 참고해 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늘날 그 책은 산실되어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

본 논의의 특징을 살펴보면, 원효는 양설의 주장이 모두 ‘성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옳다고 한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본 논의 이외에도 ‘성전’을 근거로 회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여러 분의 말씀이 모두 다 진실이다. 그 까닭은 다 성전에 근거한 것이므로 서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고,²⁶⁾ “두 분의 말씀이 다 득이 있다. 모두 경전을 근거로 하여 서로 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하였다.²⁷⁾ 이러한 언급들을 고려해 보면, 원효는 ‘경전의 내용들은 모두 옳은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왕생의 원인

원효는 정토에 왕생하는 원인으로 正因과 助因을 설한다.²⁸⁾ 먼저 왕생의 ‘정인’은 위없는 보리심을 발하는 것으로 여기에 다시 隨事發心과 順理發心이 있다. ‘수사발심’은 번뇌를 끊는다든지, 선법을 닦는다든지, 중생을 제도한다든지 하여 어떤 일을 계기도 비로소 일어나는 발심을 말한다. 그리고 ‘순리발심’은 모든 존재는 환몽과 같다든지,

26) 원효, 『대혜도경중요』(韓佛全1, 480하), “諸師說皆實 所以然者 皆是聖典 不相違故.”

27) 원효, 『열반중요』(韓佛全1, 525중), “二說悉得 皆依經典 不相妨故.”

28) 『무량수경』에서는 정토왕생의 원인으로서 正因과 助因이라는 분류이외에 수행의 주체를 기준으로 上輩因, 中輩因, 下輩因으로 구분하여 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三輩因에 관한 서술은 본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되므로 생략한다.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든지, 말과 생각을 떠났다든지 하여 진리에 의하여 일어나는 발심을 말한다.

다음 왕생의 ‘조인’이란 下輩의 10념을 가리키는데, 이 ‘하배의 10념’이라는 말의 뜻에는 2가지 종류가 있으니 隱密의 10념과 顯了的의 10념이 있다. ‘은밀의 10념’이란 『미륵발문경』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 염불하는 10념을 말한다.²⁹⁾ 그리고 ‘현료의 10념’은 지극한 마음으로 그 염불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10념을 구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현료의 10념’에 대해서는 원효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현료의 10념에 五逆罪가³⁰⁾ 포함되는가?”를 화제로 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양설의 주장이 있다.

제1설(포함설)에서는 현료의 10념에는 오역죄는 포함하고 方等を

-
- 29) ① 일체 중생에게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내고 중생의 行을 방해하지 않는 마음, ② 일체 중생에게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고 잔인하게 해칠 뜻이 없는 마음, ③ 정법을 수호하는 마음을 내고 신명을 아끼지 않는 마음, ④ 인욕하는 마음으로 결정심을 내는 것, ⑤ 깊고 깊은 청정한 마음으로 利養에 물들지 않는 것, ⑥ 일체중지심을 일으켜 날마다 항상 생각하며 잊지 않는 것, ⑦ 일체 중생에게 존중하는 마음을 내어 아만을 버리고 겸손한 말을 하는 것, ⑧ 속된 이야기에 재미를 붙이지 않는 것, ⑨ 깨달으려는 뜻을 가까이하고 여러 가지 선근인연을 일으키며 시끄럽고 산란한 마음을 멀리 여의는 것, ⑩바른 생각으로 관불하고 여러 根의 작용을 제어할 것.
- 30) ‘오역죄’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소승의 오역죄에는 ① 어머니를 살해하는 죄, ② 아버지를 살해하는 죄, ③ 아라한을 살해하는 죄, ④ 부처님의 몸에서 피가 나게 하는 죄, ⑤ 승가의 화합을 파괴하는 죄이다. 둘째, 대승의 오역죄에는 ① 탑과 절을 파괴하고 불경과 부처님 상을 불태우는 죄, ② 성문 연각 대승의 범을 비방하는 죄, ③ 출가자의 수행을 방해하는 죄, ④ 소승의 오역 중에 어느 하나를 범한 죄, ⑤ 10악을 범하는 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10악’은 ① 생명을 죽이는 것, ② 다른 이의 물건을 훔치는 것, ③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는 것, ④ 거짓말, ⑤ 이간질, ⑥ 아첨, ⑦ 욕, ⑧ 탐내는 마음, ⑨ 화내는 마음, ⑩ 어리석은 마음이다.

비방한 죄는 제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문증으로 『관무량수경』의 입장을 제시한다.³¹⁾

이에 대해서 제2설(비포함설)에서는 현료의 10념에는 오역죄는 포함되지 않고 正法을 비방한 죄도 제외한다고 한다.³²⁾ 이에 대한 문증으로는 『무량수경』의 입장을 제시한다.³³⁾

이러한 양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로 어긋나는 점을 어떻게 회통할 것인가? 저 경에서 말하려는 것은, 비록 오역죄를 지었지만, 대승의 가르침에 의해 참회한 경우이다. 그리고 이 경 가운데에서 말하려는 것은, 참회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런 뜻으로 말미암아, 서로 어긋나지 아니한다.³⁴⁾

이 글에서 원효는 양설의 주장이 언 듯 보면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할 이유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 즉 『관무량수경』에서는 비록 오역죄를 지었지만 ‘대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참회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료의 10념에 오역죄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리고 『무량수경』에서는 오역의 죄를 지었는데 ‘대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참회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료의 10념에 오역죄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1) 『불설관무량수불경』(大正藏12, 346상), “或有衆生 作不善業 五逆十惡 具諸不善 如此愚人 以惡業故 應墮惡道 經歷多劫 受苦無窮 如此愚人 臨命終時 遇善知識 種種安慰 爲說妙法 教令念佛 彼人苦逼 不遑念佛 善友告言 汝若不能 念彼佛者 應稱歸命 無量壽佛 如是至心 令聲不絕 具足十念 稱南無阿彌陀佛 稱佛名故 於念念中 除八十億劫 生死之罪 命終之時 見金蓮花 猶如日輪 住其人前 如一念頃 卽得往生 極樂世界.”

32) 원효,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559상)

33) 『불설무량수경』(大正藏12, 268상), “設我得佛 十方衆生 至心信樂 欲生我國 乃至十念 若不生者 不取正覺 唯除五逆 誹謗正法.”

34) 원효,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559상-중), “如是相違 云何通者 彼經說其雖作五逆 依大乘教 得懺悔者 此經中說 不懺悔者 由此義故 不相違也.”

본 논의에서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원효는 양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점을 들 수 있다. 원효가 제설을 회통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 대부분 제설이 ‘모두 옳다’든지, 혹은 제설이 ‘모두 옳기도 하고 그르기도 하다’든지 하여 일반상식과는 다른 결정을 접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도 있는 결정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³⁵⁾

내용적인 특징은 대승의 가르침에 의해서 ‘참회한 경우’와 ‘참회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여 논란을 잠재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고도의 견해가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이와 유사한 견해에 대한 학습도 있었을 것이다.³⁶⁾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러 경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에 통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점에 명확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 논쟁의 당사자들을 진심으로 승복하게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35) 이와 비슷한 예를 한 가지 더 들어 본다.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정설분,에서는 ‘疑殺人은 중죄인가, 경죄인가?’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제1설(重罪說)과 제2설(輕罪說)이 대립하고 있다. 원효는 회통하기를 『僧祇律』에서는 ‘저 것은 사람인가?’하며 절반정도는 사람이라고 의심한 경우에 한 말이고, 『四分律』에서는 ‘저 것은 사람이 아닌가?’하며 사람이라고 거의 생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 말이기 때문에, 양설은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원효, 『범망경보살계본사기』 韓佛全(1, 595상), “僧祇律者 約半疑於人境義故 若四分者 約疑於非人境義故 若通趣二境中疑義者 重得二罪 大乘者 犯重.”>

36) 안계현은 원효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기 이전에 혜원에 의해서 이와 유사한 견해가 개진되었다고 말한다. 즉 혜원은 ‘悔過, 觀佛 내지 발보리심의 유무’로 양경전의 차이를 구별하였는데 원효는 이것을 추종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다만 원효의 경우는 ‘참회’를 혜원보다도 특히 강조하였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안계현, 『원효의 미타정토왕생사상(하)』, 『역사학보』 18 (역사학회, 1963) pp.12-14.>

V. 사람

여기에서는 원효가 아미타불과 중생과 같은 ‘사람’에 관하여 서술한 내용 중에서 화쟁논의가 전개된 부분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는 ‘아미타불’에 대해서는 『아미타경소』에서 논하고 있고 ‘중생’에 대해서는 『무량수경중요』의 제3장 約人分別에서 논하고 있다.

1. 아미타불

『아미타경소』에서 원효는 정토에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제1장 대의」에서는 『아미타경』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량수경중요』 제1장 대의의 내용과 비슷하다.³⁷⁾ 그리고 「제2장 宗致」에서는, “『아미타경』은 삼계를 뛰어 넘는 2가지 종류의 청정함으로 구경의 宗을 삼고, 일체중생으로 하여금 위없는 도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것으로 意致를 삼는다.”라고³⁸⁾ 말하며,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논하고 있다.

원효는 아미타경의 중요한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하는 도중에 “아미타불의 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이신가?”라는 논점에 이르러서 이를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 양설의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해서 원효는 화쟁의 정신에 입각하여 양설을 회통하는 모습을 볼

37) 원효, 『아미타경소』(韓佛全1, 562하), “夫衆生心之爲心也 離相離性 如海如空 如空之故 無相不融 何有東西之處 如海之故 無性是守 豈無動靜之時 爾乃或因染業 隨五濁而長流 或承淨緣 絕四流而永寂 若斯動靜 皆是大夢 以覺望之 無流無寂 穢土淨國 本來一心 生死涅槃 終無二際 然 無二之覺 取之良難 迷一之夢 去之不易 所以 大聖垂迹 有遐有邇 所陳言教 或褒或貶 至如牟尼善逝現此穢土 誠五濁而勸往 彌陀如來御彼淨國 引三輩而導生.”

38) 위의 책, p.563상, “此經直以超過三界 二種清淨以爲其宗 令諸衆生於無上道 得不退轉以爲意致.”

수 있다.

제1설(小身說)에서는 아미타불의 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한다. 『성왕경(聲音王陀羅尼經)』에, “성문들과 함께 하시는 아미타불께서는 여래·응공·정변지이니 그 나라 이름이 淸泰이며, 성왕이 머무시는 성의 가로길이는 1만유순이니라”고 하였는데³⁹⁾ 이에 의하면 아미타불은 다른 경전의 내용과 비교할 때 키가 작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제2설(大身說)에서는 아미타불의 몸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한다. 『관경(觀無量壽經)』에, “저 부처님의 키가 60만 억 나유타항하사유순이다.”고 하였는데⁴⁰⁾ 이에 의하면 아미타불은 다른 경전의 내용과 비교할 때 키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설의 주장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이것은 저 부처님 세계에는 많은 여러 가지 성이 있어서 그런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대중의 크고 작은 것을 따라서 城도 크고 작은 것이니 큰 성에 대해서는 큰 몸을 나투고 작은 성에 대해서는 작은 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성왕경』에서 ‘만유순’이라고 한 것은 이곳에서 성문과 함께 머무는 성이기 때문이니 부처님의 몸은 그 정도에 맞추어 알맞게 머무신다는 것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관무량수경』에서 ‘몸이 크고 키가 높다’고 말씀한 것도 그 성이 크고 넓어서 많은 대중과 함께 머무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¹⁾

이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부처님 세계에는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는 대중의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39) 위의 책, p.563중, “阿彌陀佛與聲聞俱 如來應供正遍知 其國號曰淸泰 聖王所住 其城縱廣十千由旬.”

40) 위의 책, p.563중, “彼佛身高六十萬億那由他恒河沙由旬.”

41) 위의 책, p.563중-하, “當知彼佛有衆多城 隨衆大小城亦大小 大城之中示以大身 小城之中現以小身 聲王經十千由旬者 是與聲聞俱住之城 當知佛身相當而住 觀經所說身高大者 當知其城亦隨廣大 與諸大衆俱住處故.”

여러 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실 때에는 성의 크기에 맞추어서 나타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의 크기가 크게 표현될 수도 있고 작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성왕경』에서는 성문과 함께 머무시는 성이기 때문에 ‘만유순’ 정도의 크기로 부처님의 몸을 나타냈고, 『관무량수경』에서는 많은 대중과 함께 머무시는 성이기 때문에 큰 몸으로 나타내셨던 것이다.

본 논의의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원효가 양설을 회통하면서 제시한 논거가 『성왕경』과 같은 ‘경론’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⁴²⁾ 경론의 경우는 대부분 그 의미를 확정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실 때에는 성의 크기에 맞추어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확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원효는 경론의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경론 전체를 하나의 틀로 간주하고 그 속에서 문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적인 특징으로는 우리들의 오해와 무지에서 이러한 논의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본 논의에서는 ‘부처님께서 몸을 나타내실 때에는 성의 크기에 맞추어서 나타내신다.’는 점을 잘 몰랐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들과 함께 하시는 성의 가로길이는 1만 유순에 불과하고, 대승제자들과 함께하시는 부처님의 키가 60만 억나유타항하사유순으로 표현되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제설을 회통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독자들의 무지와 오해를 일깨우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42) 어떤 경우에는 회통의 근거로 ‘경론’이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가 제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원효는 『법화중요』의 「교판」에서 『법화경』의 교판상 지위는 무엇인가?에 관하여 논하고 있는데 맞서는 제1설(요의설)과 제2설(불요의설)에 대해서 ‘도리’라고 하는 논거를 제시하며, 양설 중에서 요의설이 옳다고 한다. <원효, 『법화중요』(韓佛全1, 494중-하)>

2. 정정취중생

원효는 『무량수경중요』의 「제3장 約人分別」에서 정토에서 태어나고 자 수행을 하는 ‘중생’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중생을 ‘3취중생’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邪定聚, 不定聚, 正定聚의 중생을 말하는 것이다.⁴³⁾ 『무량수경』에 의하면, 이러한 3정취의 중생 중에서 아미타정토에는 오직 정정취의 중생만이 태어나고, 부정취의 중생과 사정취의 중생은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⁴⁴⁾

이러한 설명을 한 뒤에 그는 이점과 관련되어 파생된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과 같은 이승은 과연 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이다. 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의 주장이 있고 원효는 화쟁의 입장에서 양설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1설(가능설)에서는 이승은 아미타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한다. 『보성론』에서는 아미타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 정정취의 중생에 대해

43) 원효는 3취중생의 뜻을 『보성론』에 의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모든 중생은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니 유를 구하는 중생, 유를 여윈 중생, 유와 무를 모두 여윈 중생을 말한다. 첫째, ‘유를 구하는 중생’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해탈의 도를 비방하므로 열반의 성품을 잃고 항상 세간적인 삶만을 구할 뿐 열반을 증득하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과 불법가운데 있지만 대승을 비방하기 때문에 천제와 같은 사람이다. 둘째, ‘유를 여윈 중생’에도 2가지가 있는데 도를 구하는 방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러 외도의 갖가지 삿된 소견을 가지거나 전도된 불법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도를 구하는 방편이 없는 사람으로서 성문과 연각과 같은 이승이 있다. 셋째, ‘유와 무를 모두 여윈 중생’에는 근기가 가장 예리한 중생과 보살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① ‘사정취’는 유를 구하는 중생을 가리키고, ② ‘부정취’는 유를 여윈 중생 중에서 도를 구하는 방편이 없는 사람을 가리키며, ③ ‘정정취’는 유를 여윈 중생 중에서 도를 구하는 방편이 있는 이승과 유와 무를 모두 여윈 중생을 가리킨다. <원효,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559중-하)>.

44) 원효,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559중), “如下經云 其有衆生 生彼國者 皆悉住於正定之聚 所以者何 彼佛土中 無諸邪聚 及不定聚.”

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문과 벽지불(연각), 그리고 저 두 가지(유와 무)를 구하지 않는 이를 정정취중생이라고 하느니라.”고 적혀있다. 여기에 따르면, 성문과 연각과 같은 이승은 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⁴⁵⁾

제2설(불능설)에서는 이승은 아미타정토에 태어날 수 없다고 한다. 『무량수경』에서 말하기를, “만약 제가 부처가 되어도 그 나라 가운데 성문 등의 수효에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연각 등이 백천겁 동안 세어서 그 수효를 알 수가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⁴⁶⁾ 여기에 따르면, 성문과 연각과 같은 이승은 정토에 태어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⁴⁷⁾

이와 같이 대립된 양설에 대해서 원효는 다음과 같이 회통한다.

만일 저 정토에 왕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이승으로 결정된 定性의 이승은 바로 왕생하지 못한다. 不定성의 이승은 3품으로 구분되어, 대승에 발심하면 다 정토에 태어난다. 저 세계에 태어났을 때 바로 정정취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外緣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지하기 때문이다.⁴⁸⁾

이글에서 원효는 양설이 모두 옳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 즉 이승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승의 성품이 결정된 이승(定性二乘)과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이승(不定性二乘)이 있다고 구분한다. 이 중

45) 위의 책, p.559하.

46) 『불설무량수경』(大正藏12, 268상), “設我得佛 國中聲聞有能計量 乃至三千大千世界衆生緣覺 於百千劫悉共計校知其數者 不取正覺.”

47) 원효가 『무량수경중요』에서 불능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필자의 생각에 전후문맥상 이와 같은 주장이 ‘충분히’ 삽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렇게 적어 넣은 것이다.

48) 원효, 『무량수경중요』(韓佛全1, 560중), “若就得生彼淨土者 定性二乘 卽不往生 不定性中三品之人 發大乘心者 皆得生彼 生彼之時 卽入正定 由外緣力所住持故.”

에서 정성이승은 왕생하지 못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무량수경』에서 말한 불능설이 옳게 된다. 그리고 3품으로 구분되는 부정성이승은 대승에 발심을 하게 되면 모두 정토에 태어나게 된다고 말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보성론』에서 말한 가능설이 옳게 된다.

본 논의의 형식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비록 원효가 양설을 실제로 회통하기는 하였지만 일반적인 회통논의가 갖는 형식적인 구조가 뚜렷하지 못한 점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효가 화쟁을 할 때에는 양설의 주장을 뚜렷하게 제시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2설(불능설)의 주장이 생략되고 있다. 또한 원효가 회통을 시작할 때에는 ‘양설이 옳다’라는 취지의 선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표현이 생략되고 있다.

내용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원효가 쌓은 체계적인 지식으로 해당경전이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이다. 원효는 이 문제의 해법을 상당부분 『유가론』에 의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부정취의 이승은 얼마든지 정정취로 변화할 수 있게 된다.⁴⁹⁾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언 듯 상충되어 보이는 양설의 주장을 조화롭게 화해시킴으로써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경전의 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49) 『유가론』에 의하면 부정취의 이승은 ‘3품으로 구분되어’ 정정취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즉, 하품의 선근으로 들어간 사람은 정법위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정정취가 되고, 중품의 선근으로 들어간 사람은 난법위에 들어가서 정정취가 되며, 상품의 선근으로 들어간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정정취가 된다고 한다. <원효, 『무량수경종요』(韓佛全1, 559하)>

VI. 맺음말

정토사상은 멀리 인도에서 성립하여 중국을 거쳐 한국에 전해졌다. 원효는 이 사상이 신라에 살고 있는 순수하고 신앙심 깊은 민중들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알고, 『무량수경종요』와 『아미타경소』 등을 지어서 아미타정토신앙의 참뜻을 널리 알렸다. 우리는 지금까지 원효의 저서에 등장하는 6가지 논점에 대해서 그가 제설을 화해시키는 모습을 생생하게 지켜보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토에 관해서는 그곳의 형상과 공유여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자수용토에는 형상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2개의 관점 [門]’을 제시하여 양설이 모두 옳다고 말하였는데, 경론의 저자가 가진 의도·견해·입장까지를 고려한 해석을 하여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또한 “의보는 함께 공유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양설이 ‘모두 옳기도 하고 동시에 그르기도 하다’고 말하였는데, 언어가 가리키려고 하는 참뜻을 새긴다면 양설이 맞고 틀리는 것은 다만 그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깨워주려는 깊은 의도를 느낄 수 있었다.

둘째, 수행에 관해서는 정토의 생성원인과 왕생원인이 있었다. “성변인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모두 성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옳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는 ‘경전의 내용들은 모두 옳다’라고 굳게 믿는 것을 보았다. 또한 “현료의 10념에 오역죄가 포함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양설이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폭넓은 공부로 바탕으로 당사자를 진심으로 승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셋째, 사람에 관해서는 아미타불과 정정취중생이 있었다. “아미타불

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경론의 틀 속에서 경론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독자의 무지와 오해를 일깨우고 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승은 정토에서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에서는 비록 원효의 일반적인 회통논의가 갖는 형식적인 구조는 가지지 못하였지만 그가 쌓은 깊고 넓은 경전에 관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다.

참고문헌

『불설아미타불』, 『불설무량수경』, 『불설관무량수불경』, 大正藏12
 원 효, 『아미타경소』, 『무량수경종요』, 『법화종요』, 『열반종요』, 『대혜도
 경종요』,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십문화쟁론』, 韓佛全1
 강동균, 「원효의 정토관」, 『석당논총』9,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1984
 ———, 「정토학의 실천행: 원효의 정토사상에서 본 실천행」, 『원효학연
 구』5, 원효학회 원효학연구원, 2000
 권기중, 「원효의 정토사상 연구: 무량수경종요를 중심으로」, 『불교연구』
 11, 한국불교연구원, 1995
 김정집, 「원효의 정토사상에 나타난 왕생의 원리」, 『한국불교학』23, 한국
 불교학회, 1997
 ———, 「원효의 정토학연구」, 『보조사상』11, 불일출판사, 1998
 김영일,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등능성, 「원효에 있어서의 정토왕생의 의미」, 『현대와 종교』14, 현대종교
 문제연구소, 1991
 ———, 「정토의 장엄: 원효의 시점」, 『철학논총』9, 영남철학회, 1993
 신현숙, 「원효 무량수경종요와 유심안락도의 정토사상 비교」, 『불교학보』
 29,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2
 안계현, 「元曉의 彌陀淨土 往生思想(上)」, 『역사학보』16, 역사학회, 1961
 ———, 「元曉의 彌陀淨土往生思想(下)」, 『역사학보』18, 역사학회, 1963
 ———, 『신라정토사상사연구』, 서울: 현음사, 1987
 이광률, 「원효의 정토사상: 무량수경종요를 중심으로」, 『논문집』6, 경산대학,
 1988
 이영미, 「원효의 아미타신앙과 정토관」, 『가산학보』2, 가산불교문화진흥원,
 1993
 장휘옥, 「원효의 정토사상이 일본에 미친 영향」, 『일본학』12,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3
 정용미, 「원효의 정토사상에 있어서 정토왕생의 원리와 수행체계」, 『동아
 시아불교문화』6,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0
 정철호, 「원효의 정토관」, 『정토학연구』1, 대각회 대각출판부, 1998

- 정태혁, 「원효의 정토왕생신앙의 교학적 근거와 특색」, 『정토학연구』1, 대각회 대각출판부, 1998
- 坪井俊映 한보광역, 『정토학개설』, 서울: 흥법원, 1984
- 한보광, 「원효의 정토관계 저술에 나타난 信觀」, 『원효학연구』2, 원효학회 원효학연구원, 1997
- _____, 「원효의 정토교에 있어서 왕생의 문제: 발보리심 정인설을 중심으로」, 『원효학연구』7, 원효학회 원효학연구원, 2002

Abstract

The Spirit of Harmonization in Wonhyo's thought of pure land

Kim, Yeong-il

(The Lecturer in Buddhist Department of Dongguk University)

How is Wonhyo's thought of harmonization unfolded inside of Wonhyo's thought of pure land. This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After knowing that the thought of pure land is very necessary to the simple people of Sila dynasty, he let them know the thought of pure land through writing the books. In these books, we can feel the spirit of his unique harmonization.

First of all, the chapter of pure land has 2 parts: the shape of pure land and the co-ownership in pure land. In the shape of pure land, his saying about the two kinds of gateway let us know that he interprets the scripture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author. And in the co-ownership of pure land, his words, "All theories are right and wrong simultaneously," make us to infer that he awake the importance of real meaning.

Secondly, the chapter of cultivation has 2 parts: the cause of establishment and the cause of birth. In the cause of establishment, when he said that all theories are right because they depend on the scripture, he expressed the idea that all scriptures are right. And in the cause of birth, when he decided that they needed not to argue on the matter, he exposed his great amount of study on the scripture.

Lastly, the chapter of people has also 2 parts: Amitabha and sentient beings. In the Amitabha, he awakes the ordinary people from

ignorance and misunderstanding through presenting the true meaning of the passages of the scriptures. And in the sentient beings, he gives us the exact meaning of the passage of the scriptures despite the lack of common structure of harmonious discussion.

Key words

Wonhyo, harmonization, pure land, the scriptures of pure land, Amitabha, sentient beings, the cause of establishment, the cause of birth, the shape, the co-ownership.

논문투고일 : '13. 11. 1. 심사완료일 : '13. 11. 27 게재확정일 : '13. 11. 27